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 선정

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
한인대상 독감 백신접종 이벤트
소수민족 의료지원 자원봉사 활발

박희성 전 광주 서석교 교장
학생·학부모지도봉사단 설립
헌혈증 기증운동·소록도 봉사활동도



최근 고흥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종합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후보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로 간호부문에 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과 봉사부문에 박희성 전 광주 서석교 교장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인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평생을 봉사한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해 상장과 시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간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강선화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은 2012년부터 미국 아리조나 한인간호사회 회장을 맡으며, 한인대상 독감 백신접종 이벤트와 미

국 내 소수민족 의료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봉사부문에 선정된 박희성 전 서석교 교장은 38년간 교직에 재직하며 학생 봉사단과 학부모지도봉사단을 설립했고, 헌혈증 기증운동과 소록도와 필리핀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흥군에서는 작년 12월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45일간 전국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 공공의

로기관을 통해 수상 후보자를 모집했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지역대학교 등에서 심사위원을 추천받은 데 이어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6월 으뜸 광주세관인 선정



6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된 정홍숙 관세행정관(왼쪽 첫번째)과 유공자 포상을 받은 구선미(오른쪽) 관세행정관이 성태근 세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근)은 군산세관 정홍숙(왼쪽) 관세행정관을 '6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 관세행정관은 이른바 '짹짹'이라 불리는 위조 명품 상품을 정품으로 속여 밀수한 운송업자 일당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1년여간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이 중장부 등을 심층분석해 복잡한 범행구조를 밝혀내고 중요 증거를 확보하는 등 범죄 혐

의를 입증했다. 이밖에 광주본부세관은 광양세관 구선미(오른쪽) 관세행정관을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했다. 구 관세행정관은 광양항 자동차 화물 증가에 따른 장기 장소 확보와 컨테이너 부두간 육상 이동 개선을 통한 운송시간 단축 등 물류체계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이달의 새농민상'에 김유수·이양숙씨 부부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지역 선도농업인 김유수·이양숙씨 부부(남광주농협)가 7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56세 동갑내기인 김씨 부부는 '만농장'에서 사과와 배를 주로 재배해왔다. 영농기술 연구에 힘쓰고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지역봉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씨는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1965년부터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운동 3대 정신에 앞장서는 선도농업인 부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백희준 기자 bhj@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광주·전남 17개 조합 방문



김윤식(사진) 신협중앙회장이 최근 광주·전남 17개 농·소형신협 영업장을 방문해 '동반-선도 조합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동반-선도조합'은 자산규모별 대형조합과 중소형조합 간 동반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우수대형조합의 여신역량을 중소형조합과 공유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이외 조합 간 공동대출, 중앙회와 연계 대출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백희준 기자 bhj@

인사

- ◆여수시
 - ◇4급 승진 ▲환경복지국장 서정신 ▲의회사무국장 정재호
 - ◇4급 전보 ▲기획경제국장 박은규 ▲해양수산복지국장 김병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
 - ◇5급 승진 ▲광림동장 직무대리 김수연 ▲문수동장 직무대리 박희우 ▲주삼동장 직무대리 이상욱 ▲삼산면장 직무대리 이준호 ▲동문동장 직무대리 김철호 ▲농촌진흥과장 직무대리 황순석 ▲어업생산과장 직무대리 박정환 ▲공영개발과장 직무대리 박성식 ▲중앙동장 직무대리 김성준
 - ◇5급 전보 ▲시민공감담당관 장광일 ▲한국산업단지공단파 김성열 ▲정수과장 이육재 ▲인구일자리과장 신영자 ▲관광과장

- 박형열 ▲교육지원과장 강형숙 ▲도시미화과장 조민수 ▲재난안전과장 최영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양태열 ▲식물위생과장 한진숙 ▲특산품육성과장 윤석호 ▲공원과장 김중원 ▲소리면장 이근철 ▲화양면장 문장근 ▲화정면장 김종필 ▲여서동장 서재훈 ▲둔덕동장 최재영 ▲만덕동장 오병태 ▲삼일동장 차주민 ▲사회복지과장 장병연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 ▲여성가족과장 류갑선 ▲미평동장 최중균 ▲농업정책과장 윤희순 ▲출생면장 이흥기 ▲돌산읍장 정덕영 ▲전라남도 COP28유치추진단과장 고기남 ▲기후생태과장 오동진 ▲허가민원과장 김동호 ▲도시재생과장 박장배 ▲민원지적과장 최윤모 ▲미래농업과장 범인숙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이 맛에 산다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미치지 않고서야(재)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 씬과 함께 스페셜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UHD 습터	00 멀리서 보면 푸른 봄(재)		00 애니갤러리 30 헬로킷10 뱅 45 애니메이션 런닝맨 2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노래가 좋아(재)	00 12 MBC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네트워크특선 이스트라이프 50 근대사 100년, 그들의 증언 55 UHD 습터(재)	20 영상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킷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다큐 온(재)	00 KBS 뉴스타임 10 뽀뽀쿨(재) 30 TV 유치원	20 푸리가 식사교실(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55 5 MBC 뉴스	00 행복복계 알짜배기(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종알종알 돌돌이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50 오매 전라도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빨강 구두	05 미치지 않고서야(재)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3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랜선 장터	00 미치지 않고서야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표리부동	20 라디오스타	40 백중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튜디오 K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꿀잼 영화가 좋다(재) 35 통합뉴스룸 ET(재)	00 오마이싱어	20 나이트라인 50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세미와 매직큐브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역사놀이매 아리아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요태	12:10 극한직업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뽀 뽀뽀로	14:10 EBS 다크프라이	19:50 다시 인생, 죽기 전에 꼭 한번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포도제닉 아시아 -기차길 열 동남아>
08:00 똥동맹 유치원	15:15 클래스 e	21:30 한국기행 <그 여름의 추억 3부 이 맛에 삽니다>
08:30 출동! 슈퍼핑크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50 EBS 다크프라이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 명TV	22:45 세계의 대자연
09:00 시공	16:00 마사와 꿈	23:35 클래스 e
09:15 봉우야 말해줘2	16:15 개구쟁이 조이	23:55 EBS 비즈니스 리뷰
09:30 우당탕탕 아이큐	16:30 똥동맹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7일(음 5월 28일 丙辰) ☎ 010-9790-8237

<p>36년생 건너짚었다 가는 망신당하는 수가 있다. 48년생 커다란 행운이 보이지만 대고도 없느니라. 60년생 활용한다면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 72년생 지금,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84년생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룰 수 있다. 96년생 지금 힘이 들더라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5, 82</p>	<p>42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54년생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66년생 유사한 상황만 반복해서 계속 될 뿐이지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78년생 계획한 바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찬스이다. 90년생 착각한다면 큰 차이가 벌어진다. 02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7, 74</p>
<p>37년생 견뎌 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49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대미문의 형태로 나타나리라. 61년생 준비가 있었다면 즉시 실행해도 좋은 판도이다. 73년생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해결 된다. 85년생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97년생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2, 73</p>	<p>43년생 상호간에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5년생 외형의 가치를 중시할 줄 알아야 한다. 67년생 가까운 이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 79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곤경에 빠진다. 91년생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귀한 날이로다. 03년생 간성해야 할 일이 생기지만 잠시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5, 67</p>
<p>38년생 당대지사가 활기를 띠면서 대폭적인 진전을 보이겠다. 50년생 인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느니라. 62년생 미리 서둘러야만 한다. 74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86년생 가장 왕성한 불길이 일고 있는 양상이다. 98년생 발단은 사소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9, 57</p>	<p>32년생 조그만 허점도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44년생 활력소가 되어 줄 만한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56년생 참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다. 68년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80년생 판세를 안정시키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92년생 재수불운을 올린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97</p>
<p>39년생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51년생 표면만 보아도 내용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63년생 철회하는 것이 현명하다. 75년생 장소를 함께 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이다. 87년생 임시적인 방편으로 도모한다면 무의미하다. 99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할 것이니 형식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1, 63</p>	<p>33년생 임시적이니만큼 전혀 집착할 필요 없다. 45년생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답답할 뿐이다. 57년생 잘 살펴보면 분명히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69년생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81년생 치우친 주관은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느니라. 93년생 실제적이지만 다면 아무런 허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5, 59</p>
<p>40년생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52년생 기회는 뜻밖에 왔다가 쉽게 사라질 것이다. 64년생 가벼운 정황이 현상으로 비화 되지 않도록 하자. 76년생 투명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88년생 극한적인 돌발 사태가 보이나 매사에 신중하라. 00년생 길한 기운이 모아지고 있으니 순조로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85</p>	<p>34년생 상투적인 일상에 타버릴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46년생 요령을 찾고 보면 매우 쉬워질 것이다. 58년생 명분은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낳는다. 70년생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82년생 여무지게 마무리하고 나야 후일을 도모하기가 용이해진다. 94년생 육식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22, 66</p>
<p>41년생 상대를 먼저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65년생 애매한 입장이라면 아예 관여하지 않음이 백 번 나은 것이다. 77년생 힘든 고비가 남아 있으니 각오해야 한다. 89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대비가 불가능하다. 01년생 협조자를 자칭하는 이가 나타나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41, 61</p>	<p>35년생 거시적인 안목으로써 내다 볼 줄 알아야겠다. 47년생 현상 유지하는데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9년생 수단하고 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함께하는 이들과 인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83년생 정황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 하느니라. 95년생 정해진 수순대로만 행한다면 아무런 허미가 없었다. 행운의 숫자 : 21, 86</p>